

동학농민혁명

22호

2015 겨울



無名東學農
民軍慰靈塔



신년사

· 이사장 신년사

주요사업

- 재단포커스
- 기획특집

인턴뷰&칼럼

- 인턴뷰 ① 발굴! 참여자 유족
- 인턴뷰 ② 동행공간
- 녹두칼럼

동학농민혁명

- 이념의 유물
- 인물열전
- 유적지

소개합니다

- 독자투고
- 건강과 생활

녹두꽃 소식

- 사발문
- 전국 네트웍
- 알려드립니다

녹두꽃

22호
2015 겨울

무명동학농민군위협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5년 겨울호(22호) 발행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처: 김포로 주소: 전라북도 무안군 동학로 742-2 지하 063 538-2896
 팩스: 063-538-2993 E-mail: 1894@1894.or.kr homepage www.1894.or.kr 계명: 영민회비리
 본지는 살인·강도·강박의 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상업적 유통처가 될 수 없습니다.
 게재료 <녹두꽃>는 창간호(2010년 가을호)부터 이번호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djiori@1894.or.kr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15 겨울 22호

02	신년사	
04	녹두칼럼	동학농민전쟁 사료를 수집하면서
08	재단포커스	제12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개최
10	기획특집	동학농민군 첫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진 황토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2	인터뷰 ① 발굴! 참여자 유족	문서연락과 정보 수집을 담당한 동학농민혁명군 김영달 - 후손 김범중
14	인터뷰 ② 동행공감	동학농민혁명모티브소설 『나라 없는 나라』 -소설가 이광재
18	이달의 유물	10 · 11월 이달의 유물
20	인물열전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이희인
22	유적지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2



24	독자투고	김개남 장군 피신처와 피체지를 찾아서
28	건강과 생활	왜, 겨울철에 간지러움이 더 심해질까?
30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34	전국 네트워크	원평집강소 활용방안 토론회 등
37	알립니다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5년 겨울호(22호)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김대곤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1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중세문명과 근대문명,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가 일제의 불법적인 학살만행으로 시린 겨울산하에 선혈을 뿌리고 스러져간 갑오선열의 넋이 떠올라 가슴 아픕니다.

1894년 겨울, 공주우금치에서 일본군의 근대식 신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한 동학농민혁명군은 일본군의 섬멸작전에 밀려 땅 끝 장흥과 해남 등지로 후퇴하면서 조선의 남녘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최근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재화를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기념재단을 운영해온 제2기 집행부는 올해 4월 임기가 끝납니다. 제2기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를 비롯하여 기념공원 조성사업, 국가기념일 제정사업, 기록물세계기록



유산 등재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의 주춧돌을 마련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출범할 기념재단 제3기에서 위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향후 기념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의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신 전국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주신 지역단체 임원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 대 곤**



동학농민전쟁 사료를 수집하면서

이이화 역사학자,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필자는 1970년 끝 무렵부터 서울대 규장각에서 한국본 해제집(解題集)을 내는 작업을 맡아보았다. 이럴 때 필자는 많은 자료를 섭렵할 수 있었다. 특히 동학농민전쟁 관련 사료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전봉준공초>(全琫準供招)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련 기록을 정리하였다.

이어 다른 도서관에 수장된 이 관련 사료를 조사하고 검토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74년 간행한 <동학란기록>을 검토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였던 실무자를 만나서 국편에 간행되지 않은 다른 관련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당시 박영석 국편위원장에게 부탁해 이를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영석 위원장은 실무자를 시켜 국편 자료실을 샅샅이 뒤져 <오하기문> 복사본을 찾게 되었다. 당시에는 국편 소장의 사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게 쌓여 있었다.

<오하기문>(梧下紀聞)이라는 표제를 단 사료에는, 갑오년의 모든 사실을 담았다. 나는 놀라마지 않았다. 그 동안 이 관련 저술로 <매천야록>에, <동비기략>(東匪紀略)이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오하기문>이 바로 그 저술이란 판단이 들었다. 그런데 한문학자인 이민수 선생이 번역해 펴낸 <동학란>(을유신서 17, 1984년)이 출간되었다. 이민수 선생은 무슨 근거인지 부제를 <동비기략초고>라고 붙여 펴냈고 김창수 교수가 쓴 해제에도 이런 설명을 하였다. 더욱이 뒷부분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었다.



한편 전주대학교의 호남연구소에서 황현의 시문집 등 몇 가지 저술을 후손에게서 인수해 〈황현전집〉을 간행하였는데 거기에 실린 〈오하기문〉은 동학농민전쟁 부분은 빠지고 의병관련의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오종일교수가 이 일을 담당하였는데 전해지는 말로는, 김아무개 교수가 구례 매천사를 관리하는 매천의 종부에게서 〈오하기문〉을 빌려 갔다가 돌려주면서 쪼가리를 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소문은 지금도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다.

필자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이 〈오하기문〉을 교재로 삼아 강독하였다. 이때의 강독을 토대로 김종익씨가 번역해 역사비평사에서 간행하였다. 또 정창렬교수가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이 국편에서 찾은 〈오하기문〉을 복사해 보내 주길래 대조해 보니 필자의 강독본과 똑 같았다. 현재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에 실린 〈오하기문〉이 바로 이 사료이다.

또 한 가지, 전봉준의 고시문과 관련된 얘기가 있다. 이 사료는 〈동학란기록〉에 실려 있는데 언문본이다.

그 제목은 “고시경군여영병이교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한우근교수는 “告示京軍與營兵而教示民”으로 해석하였다. 곧 “경군과 영병에게 고시하고 백성에게 교시하노라”라고 풀이한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쓰면서 “告示京軍與營兵吏校市民” 곧 “경군과 영병과 이교와 시민에게 고시하노라”라고 풀이해야 맞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대본을 정창렬교수가 국편에서 발굴하여 연구자들에게 보내주었는데 한자로 부기한 부분이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199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부설로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러 기념사업을 펼치면서 사료총서(史料叢書)의 간행을 준비하였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먼저 연구자들이 수집한 사료를 모으기로 하였다. 그 편찬위원은 표영삼, 정창렬, 신용하, 이이화, 조광, 신영우, 강창일, 우윤, 박맹수, 왕현종 등이었다. 이들이 소장한 사료를 낼 때 정창렬교수와 신영우교수가 수집한 사료,



신용하교수는 국편에 보존되어 있는 오지영 <동학사>의 필사본, 조광교수는 무텔문서의 동학관련 문건, 박맹수교수는 호남지방에서 수집한 사료, 표영삼선생은 최제우 최시형 등 동학 관련 사료를 내놓았다.

한편 실무를 맡은 왕현중교수는 아르바이트 학생 6-7명을 동원해 여러 도서관 사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양호진기> 등 귀중한 여러 건의 사료를 발굴하였다. 그런데 두어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고려대도서관과 연세대도서관 등에서 특정 사료를 전부 복사해 주지 않고 부분 복사만 해주었다. 그리하여 찌를 찌낸 게 두세 사람이 한 사료를 각기 부분 복사해서 짜 맞추는 방법을 썼다. 이런 일을 당시 강사급인 차미희교수(현 이화여대) 등이 동원해 봉사해 주었다.

<동학란기록> 등에 실려 있지만 원본 영인을 할 수 없는 사료는 워드를 쳐서 복원해냈다. 국편 편사실에서 이를 알고 오지영 <동학사> 필사본과 <오하기문>을 수록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필자는 “국편은 공적 기관이다, 비영리 민간 학술단체에서 이를 이용해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쳤다.

한편 일본의 신문 잡지에 게재된 관련 사료는 당시 강창일교수(배제대)가 일본 동경대학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수집한 게 있어서 이를 담당하였다. 또 고석규교수(목포대)가 일본에 있으면서 이 관련 사료를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어서 이를 여기에 보충하기로 하였다. 뒤에 이종일 서지학자께서 일본 사료를 많이 입수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료와 대조해 보더니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해 주었다.

또 편찬위원 몇 분은, 동학 또는 천도교 사료는 본편에 수록하지 말고 부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필자는 조금 난처해서 이를 담당한 표영삼 선생에게 전달했더니 그런 주장이 있다면 따르겠다고 동의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당시 100주년을 앞두고 지방에서 발굴한 사료를 모으는 일을 했다. 신순철교수(원광대)가 발굴한 <석남역사>와 이상식교수(전남대)가 발굴한 옥중편지 등 새로 발굴한 사료도 포함되었다.

총서의 분량이 워낙 많아 본격적 해제작업을 하는 건 조금 번잡하다고 여겨서 각 사료마다 간단한 해설을 붙이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래서

편찬위원이 자신들이 발굴한 자료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이를 작성하였다. 이 일을 열성으로 해준 편찬위원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우윤과 왕현종 위원이었다. 또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이나 관찬사서에 나오는 관련 부분은 널리 공간되어서 굳지 수록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 난관이 또 따랐다. 당시 국학 관련의 영인본을 많이 내는 여강출판사의 지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이조실록> 등 북한 관련 사료의 국내 출판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난관에 부딪쳐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한 100주년에 즈음해서 출간할 수 없었다. 그런 끝에 표영삼선생이 이종학선생과 천도교에 자료전신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이 총서의 영인 간행을 부탁하였다. 이종학선생이 이에 흔쾌하게 동의해 주어서 모든 관련 경비를 부담해서 1996년 마침내 30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마지막 두어 가지만 적어 보겠다. 이 총서를 강만길교수(고려대)에게 증정하였는데 그분의 모든 자료를 북한의 역사연구소에 기증하였다. 왕현종교수가 개성에서 고려사 관련 발굴 조사할 때 북한학자들과 만나 이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읽고 분석한다고 말하더라. 또 이종학선생이 북한에 가서 사회과학원에 이 총서를 전달하면서 남쪽의 전공학자와 역사문제연구소 이이화소장이 이를 발굴 편찬해 냈다고 말을 하니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또 금강산에서 고구려 문제를 두고 남북역사학자대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이때 내 팀에 북한의 아무개 소설가가 끼어 있었는데 갑오농민전쟁에 대해 소설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총서를 활용하라고 알려주었다. 필자는 북경대학도서관에서, 1945년 해방이 되던 해 북한에서 청소년용으로 펴낸 <갑오농민전쟁>을 열람한 적이 있었다.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소모사실> 등 새로이 10여종을 발굴하였고 박맹수교수는 일본 자료를 새로 찾아내서 펴낸 적이 있다. 더욱이 <사발통문>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사료의 발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꾸준하게 발굴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제12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개최

“10월 12일(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2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구를 위해 열린 올해 기념대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과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회장 이기곤), 천도교 중앙총부(교령 박남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3.) 제정 이후 8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시급하다는 추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함께 힘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하자’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창작뮤지컬 <들풀>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임성민 아나운서의 개회선언과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대회사,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기념사,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의 환영사 등으





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격려사(박위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 대독)와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귀빈들의 축하 인사가 있었다. 이밖에도 바쁜 일정으로 기념대회 식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서면 축하 등이 있었다.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재화를 지향하는 내용의 '신창의문'이 낭독되었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힘써온 분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공로패는 김동길(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前이사장), 김수호(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지도위원), 정갑선(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기념재단에서 제작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동학농민혁명의 노래'를 쇼엔라이프 합창단과 참가자 전원이 함께 부르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5년도 기획전시

동학농민군 첫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진

오늘 황토현의 어제와 그리고 내일

박아영 기념관운영부 학예사

기획전 〈동학농민군 첫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진 황토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1894년 4월 6일(음)에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맞서 싸워 크게 승리한 황토현전투 현장의 시대적 변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황토현의 어제, 황토현의 오늘, 황토현의 내일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하였다.

전시 소개

첫 번째 파트 〈황토현의 어제〉는 1894년 황토현전투 당시 상황을 소개하였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고창, 흥덕, 사포·후포를 거쳐 3월 23일 고부를 다시 점령한 후 26일경 백산으로 나아가 농민군 대오를 확대·재편한다. 이어서 호남의 수부이자 제1차 점령목표였던 전라감영을 향해 진군하던 중 태인을 지나 금구에 이르렀을 때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감영군이 출정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부대를 되돌렸다. 급기야 4월 6~7일 황토현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감영군을 크게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다.

전시 자료 『영상일기』(嶺上日記)에는 황토현전투 당시의 상황을 “동적(동학농민군)들이 고부 두승산에 모여 두 봉우리의 불을 끄고 중간 봉우리 하나에만 불을 피웠다. 관군은 적이 잠을 잔다고 여겨 군사를 출동시켰지만, 사방이 고요할 뿐이었다. 그런데 적병이 두 봉우리 아래에서 나와 관군의 후미를 끊고, 중간 봉우리의 적들이 관군의 앞부분을 공격하였다. 관군들은 그 계략에 빠져 죽은 자가 산을 뒤덮

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긴박한 전투상황과 농민군의 전술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관군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사기가 높아져 서울에서 파견된 초토사 홍계훈의 정부군을 장성 황룡강으로 유인하여 격파하였다. 이후 파죽지세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료 등을 전시하였다.

두 번째 파트 〈황토현의 오늘〉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었던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황토현전적지의 변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해방 후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동서냉전체제시기 등의 정치적 혼란을 거치며 ‘동학 난, 동비의 난’ 등으로 평가절하 되어왔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르러 비로소 그 역사적 가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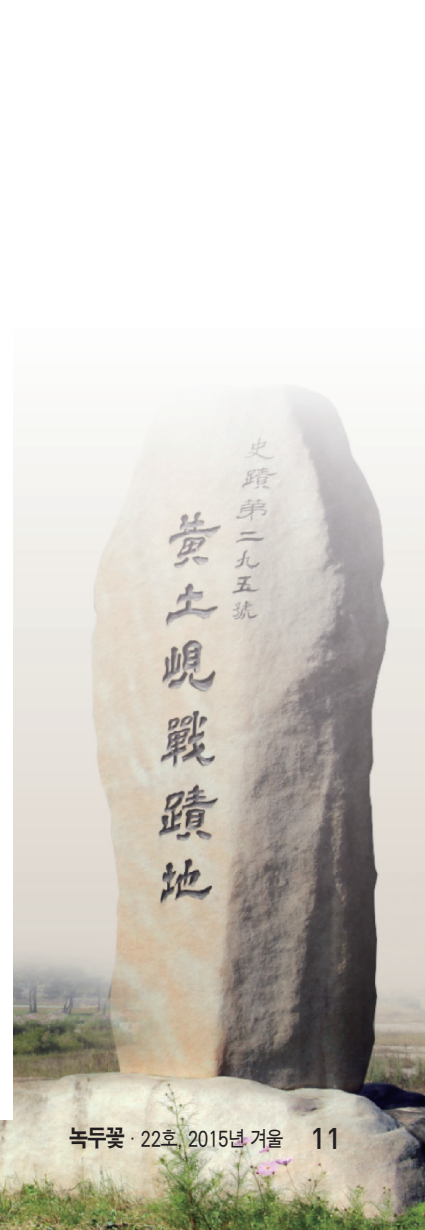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으로 민중의식이 고양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62년 6월 서울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협회]가 창립되면서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던 이 사건이 혁명으로 명명되기 시작했고, 그런 흐름 속에서 1963년 10월 황토현전적지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졌다. 이후 황토현전적지는 1980년대 국가사적(제295호)으로 지정되었고, 구기념관과 전봉준동상 등이 건립되었다. 나아가 2004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교육관이 건립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 파트 〈황토현의 내일〉은 황토현전적지에 조성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동학농민군 첫 전승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1960년대부터 추진된 기념사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황토현전적지는 어제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8조와 제9조 등에 의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6,428㎡의 면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갑오선열의 뉘를 기리는 추모공간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역사문화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구의 비전을 열어나가는 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황토현전적지가 지닌 역사적 의미, 갑오선열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그동안의 활동상, 현재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

- 이번 기획전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관람 가능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063-536-1894로 연락바랍니다.



문서연락과 정보 수집을 담당한 동학농민혁명군 김영달

김범중 참여자 김영달의 증손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인 이곳에서 많은 내방객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을 해설하고 증조부님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많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김범중 선생님 안녕하세요? 녹두꽃 독자 분들께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명예 퇴직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6년간 일했으며, 현재는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 알고계시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오래전 중앙일보에 실렸던 김홍섭 옹의 인터뷰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옹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으로, 저희 증조부님과는 동문수학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접하면서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증조부께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창의소와 농민군과의 문서연락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날래고 변장술에 능해서서 황하장수(여러 일상용품을 메고 다니며 판매하는 장사꾼)로 변장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일에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2차 봉기 이후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송문수를 따라서 무장과 영광 등지에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Q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에 대해 어떤 분 또는 어떤 경

로를 통해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조부님께서는 자주 두루마기를 입고 외출하시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 마을인 무장면 원촌리 송산마을에 사시던 김홍섭 옹을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조부님께서는 김홍섭 옹께 증조부님의 생사여부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시신은 수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여쭙보러 다니셨던 것입니다. 조부님께서 증조부님의 유골을 찾아 수습하기위해 무진 애를 쓰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김이남 숙부님께서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에 대해 전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증조부님의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숙부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증조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조부께서 재봉기 당시 송문수 장군과 함께 무당과 영광 등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 우금티에서 주력농민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부퇴로로 후퇴하셨으나, 도중에 영광에서 관군들에게 체포되어 1894년 12월 27일에 영광관아 네거리에서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증조부님과 증조모님의 합장묘가 무장면 강남리 석수마을 후등에 위치해 있는데, 증조부님은 유해를 찾지 못해 대추나무패를 깎아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식날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Q 집안에 증조부님 외에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증조부님 외에 집안 어른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배 지긋하신 분들 중 조부님이나 증조부님들의 유골이나 묘지가 없는 분들은 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합니다. 고창지역에서도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의 희생되었는데 유족등록을 받아보니 종이 한 장도 채우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증거가 없을 뿐, 보이지 않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정신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참여자 후손으로서 감회를 말씀해주십시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정부분 복권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됨으로서 정신선양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유족으로서 거는 기대가 아주 큼니다. 현재 국가보훈법은 독립유공자의 범위를 을미의 병, 즉 1895년의 의병활동부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나 정부 부처들이 노력하여 이를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로부터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적게는 10만에서 30만까지 초개같이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 더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실까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난 10여 년간의 허송세월을 보낸 후에도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잘못 제정된다면 훗날 역사를 배우는 후손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후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지역다툼의 문제를 넘어서 정당한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모티브소설

『나라 없는 나라』로

제5회 **혼불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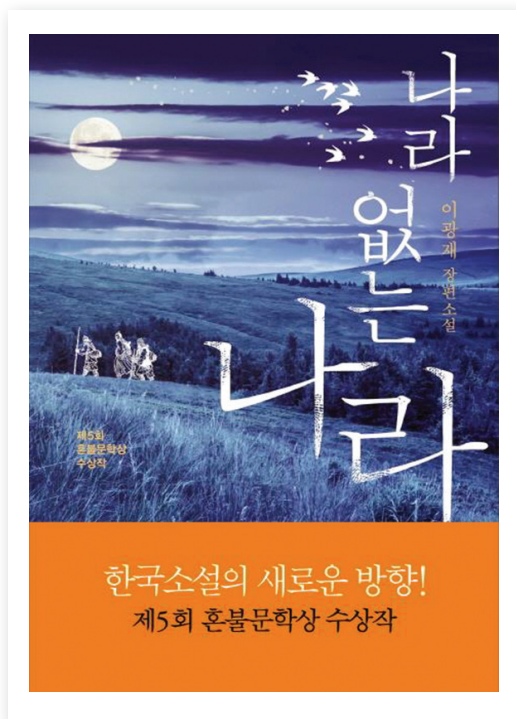
Q 작가님께서 전봉준 장군의 평전 『봉준이, 온다』에 이어 이번에는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나라 없는 나라』를 집필하여 제5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연유가 있는지요?

청년시절에 소설을 쓰다가 생계문제 등으로 한동안 펜을 놓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고민 끝에 글을 다시 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순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글이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인간이 어디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대중들에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이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계가 고장이 나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고,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고장인지,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의 세계, 즉 근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공부하고 대중들과 호흡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자면 자신의 탄생과 유년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한반도가 서구와 서구의 변종인 일본, 청나라의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근대로 나아가기 위한 용틀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근대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니 그곳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면서 소설을 쓸 생각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소설보다도 그 실재를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평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게 된 평전이 『봉준이, 온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번에 소설 『나라 없는 나라』를 쓰게 됐습니다. 애초에 평전, 소설, 영화로 이어가는 3부작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지금은 『나라 없는 나라』의 영화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전봉준 장군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평전 『봉준이, 온다』를 집필 후 작가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대 초기의 주요세력 중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화파와 동학농민혁명군 두 집단이었습니다. 개화파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세력기반이 없어 외세의 힘



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다른 세력인 동학농민혁명군은 근대에 대한 이념을 개념화 된 형태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다. 그러나 그들이 전근대를 부수려했던 것을 보면, 그 대안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은 그 시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고,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갖춘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바로 전봉준 장군입니다.

전봉준 장군은 당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개남 장군의 비타협적인 반봉건투쟁이 물론 시원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시대상황 상 결코 옳은 전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준 장군은 1차 봉기 이후 다시 싸움이 벌어지면 외세와의 싸움이 될 것이란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양반, 유림들과 함께 이에 대적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봉건 투쟁을 자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은 동학의 직책상 접주였습니다. 위계상 동학농민혁명군의 총대장을 맡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이를 지휘한 것은 전봉준 장군이 그 시대에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도 모두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Q 『나라 없는 나라』를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독자 분들이 근대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봐줬으면 했습니다. 『나라 없는 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대목이 대원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사에서는 대원군을 채국정치를 시행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를 침략하는 외국에 맞서 싸운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지세와 군포를 양반에게 부과하고, 수탈기구인 서원을 철폐하는 등 백성을 위해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근대라는 이름의 폭압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끌어버리고 자신의 것을 세우는 아량 없는 근대의 행태, 왜곡되고 고장 난 근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인하고 방

“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전선을 지켰으며,
당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조직의 중심에 있었으며,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있던
리더로 근대의 문을 막 열고
들어온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

치한 채로 주저앉아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자
신만의 안전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순된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위험
하게 살아보는 것이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집필계획은 어떠신지요?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집필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음시대로 가야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만주로 가서 취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만주는 일제치하의 독립운동부터 청산리전투, 자유시사변, ана키스트들의
테러활동, 만주사변, 간도참변 등 우리의 식민지 시대가 집약되어 있는 곳입
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얘
기는 얼마든지 있으니 아마 평생 쓰게 될 것 같습니다.(웃음)

Q 동학농민혁명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지요?

구한말에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나섰던 것은 서구의 시민
혁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서구는 성공했고 우리는 좌절했던 것인데, 서
구의 시민혁명은 외국에서 횡방 놓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시민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의 세력을 일소하는 싸움에서 외세와의
싸움으로 전환되면서 훨씬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일본
이 제국주의로서 자신의 마각을 드러낸 시기였고, 동학농민혁명군은 그런 제
국주의 세력을 저지하는 1차 저지선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돌파 당
하자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의 식민지화, 만주사변, 진주만폭격, 호
주폭격으로 점점 확대되어 전 세계가 대 참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때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10월의 유물

|도인경과내력|

도인경과내력은 해남현의 이방이 작성한 것으로, 1894년 6월 해남현을 지나간 농민군 4천 7백여 명에게 제공한 술과 음식에 대한 소요경비를 기록해 놓은 자료다. 이 자료에는 경비를 부담한 사람과 금액이 적혀있는데 대부분이 해남지역 유지들로 보인다. 도인경과내력은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어떻게 필요한 물자를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11월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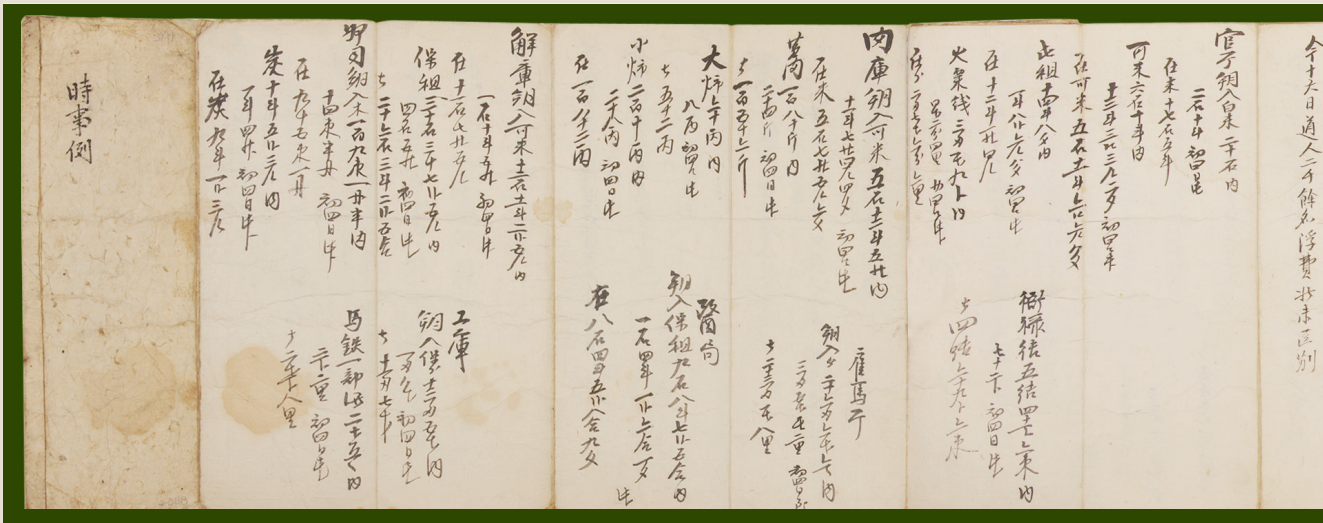
|1894년 HARPER'S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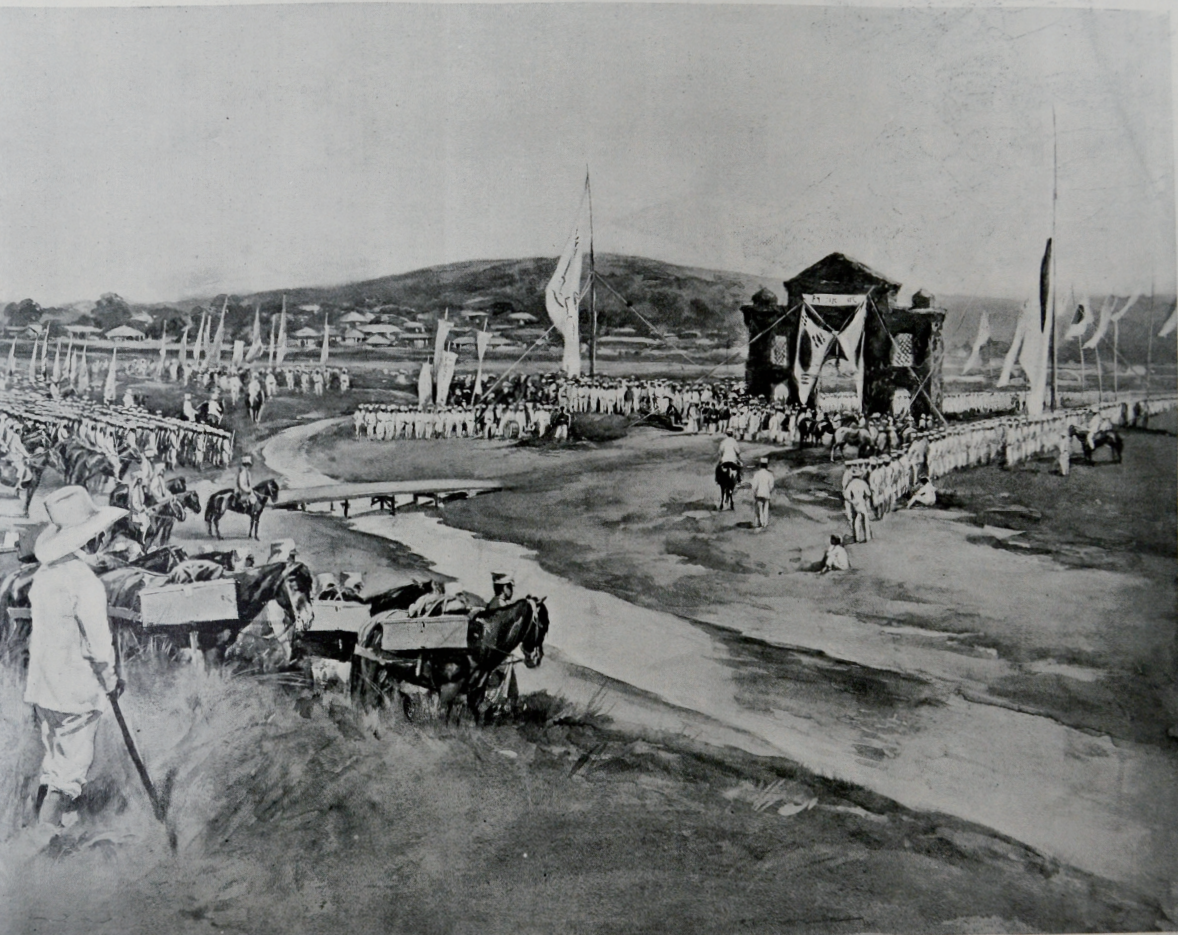
1894년 당시 발행된 「하퍼스 위클리」는 1857년부터 1916년까지 미국 뉴욕에서 발행된 잡지로, ‘일본군과 청군포로’ 삽화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상황을 소상히 전달했다.



하퍼스 위클리

도인경과내력





THE JAPANESE REJOICING AFTER THE BATTLE OF YASAN.

The Victorious Army at the Arch of Welcome erected outside the Gates of Seoul.—Drawn by G.W. Peters after a Photograph.—[See Page 942.]

道人經過未歷

今六月十一日東學道人七日止二平餘人二十三日手餘人三九日六十餘人七月初三日二百餘人初八日二百餘人十六日二百餘人前後過者為四百六百餘人入未

自各執旗統帥放砲入城其勢危悚人民騷動而供饋則自州內各家典市與酒家分派為之是旅配所月日使先所持錢四千三百兩內一千一百十兩係民間五百兩係給奴令及各廳漢婢子數人等履而供饋停費條為六千餘兩內一千兩官出餘數自銀銅所排定於各而健虎處是千餘自銀錢五兩及千步鏡六柄深刀三柄火藥五斗鉛九斤介威骨簪去是白齊道人經過停費金錢六千四百八十九兩九錢四分內

一百九兩五錢 尹恩使米仙林
七十二兩零錢 吏房家支估計
在錢六千四百九十八兩內

一千兩 官當 三百兩 梁相完

一千兩 奇恩役 三百兩 梁恩役
三百兩 孫恩役 三百兩 梁政正
三百兩 張漢登 三百兩 盧昌錫
三百兩 梁花洞 三百兩 尹京陳

一百零兩 辛德甫 一百零兩 鄭三三
一百零兩 連甫 退妓 一百零兩 安正熙
一百零兩 朴連保 一百零兩 金錫基
一百零兩 鄭恩役 一百零兩 朴月峰

一百零兩 尹在三 一百零兩 金澤辰
一百零兩 閔伊尼 一百零兩 具重勳

이희인(李熙仁, 1846~1894) :

천안 세성산 전투를 지휘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교조신원운동의 핵심 인물

현재 천안시로 되어 있는 충청도 목천은 2세 교주 최시형의 지시를 따르는 북접 계통의 동학이 활발히 활동하던 곳이었다. 이 지역에서도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시 교단의 총동원령에 따라 적극 호응하여 봉기하였다. 이 때 목천지역 농민군 봉기를 지도한 인물이 이희인과 김복용이었다.

후일 1919년 유관순 열사와 3·1운동으로 유명한 목천현 병천면 지역의 병천리 개목마을에 살고 있던 이희인은 양반 출신의 향촌 지식인이었다. 그가 동학에 언제 입도하였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기록상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이미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그의 이름과 활동이 파악되고 있었을 정도로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1893년 3월 동학의 초대 교주로 이전 1864년 처형된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고, 자유로운 포교를 위해 2대 교주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도 수만 명이 보는 장내리에 모여 선무사 어윤중에게 청원서를 올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 올린 청원서는 자신들은 선왕조의 적자(赤子)로 삼강오륜(三綱五倫)과 화이(華夷)를 분별하며, 의를 드높여 왜양(倭洋)을 물리칠 것이며, 이러한 뜻을 임금에게 알려 의로움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 청원서는 창의유생 허연, 이중창, 서병학, 이희인, 송병희, 조재하, 이근풍 등 7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당시 김복용도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세성산 전투를 주도

이듬해인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무렵에 가면 전국 기포령에 따라 이희인은 동학 좌우도(左右道) 도금찰(都禁察)의 직책으로 김복용과 함께 목천에서 농민군을 규합하여 의거를 일으켰다. 이들 북접 계열 동학농민군들은 목천을 비롯하여 천안, 전의의 관아를 습격해 무기를 빼앗고 곡식을 징발하여 세성산과 작성산에 운동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9월 말에는 농민군 4천여 명이 추가로 합세하였다.

그러자 조선정부는 10월 14일 목천현감 정기봉을 소모관으로 임명하여 봉기한 농민들을 진압케 하였다. 또한 죽산부사 이두황이 이끄는 토벌군도 같은 달 18일 세성산으로 이동하였다. 21일 아침 이곳에 도착한 이두황은 세성산과 그곳에 근거한 농민군에 대해

“삼면이 심한 절벽이고 한 면만이 조금 평지였는데 진지가 매우 견고하고 넓었다. 깃발이 숲처럼 서 있었고 포성이 들판을 울렸다”

고 적고 있다. 21일 하루 종일 세성산을 둘러싼 농민군과 이두황 관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힘에 부친 농민군들은 전투에서 패하고 그날 저녁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 농민군으로부터 빼앗은 총과 창

은 428자루, 화살 5,300촉, 탄환 2만 5천여 개, 곡식 700석 등이었다. 관군의 추격과 패잔 농민군 체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는데, 이두황은 17명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세성산은 산 모양의 사자가 앞발을 딛고 웅사하는 모습처럼 되어 있어 전쟁이 나면 시체가 쌓일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한다. 실제로도 당시 시체가 많이 쌓여 지금까지도 ‘시체가 쌓여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의 ‘시성산(屍成山)’으로, 골짜기도 ‘피골’이라 부르고 있다.

전봉준과 오지영의 기억에 남아있는 인물

세성산 전투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이 벌인 공주전투 이전인 1894년 10월 21일 이희인과 김복용이 이끄는 천안 목천 일대의 농민군이 죽산부사 이두황 부대에 맞서 싸운 전투이다. 전투 과정에서 김복용은 체포되어 현장에서 처형되었고, 이희인은 세성산에서 가까운 마을로 달아나 숨어 있었으나 지역민의 밀고로 다음날인 22일 소모관 정기봉에게 체포되었다. 이때 체포된 사람은 60여 명이었다. 그는 한철영 등 체포된 12명의 부하들과 함께 24일 복면 사기실에서 총살되었고, 그가 살던 개목마을은 불태워졌으며 가족과 지역민들도 곡식과 재물을 빼앗기는 등 심한 고통을 받았다.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직후 1895년 2월 11일 농민군 총 대장 전봉준은 공초(供招)에서 천안의 연루자를 사실대로 고하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 이는 이희인 혹은 김복용 등을 가리킨 것으로 전봉준과의 관계를 떠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는 살아있을지 이미 죽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지를 보호하려는 전봉준의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 『동학사(東學史)』의 저자로 유명한 오지영도 전봉준이 체포될 무렵 이희인과 김복용이 관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심문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동학농민혁명이 지난 지 한참 후에도 오지영은 이희인과 김복용이 전봉준과 함께 1895년 3월 17일 경성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2



금성관과 왼쪽 너머로 보이는 금성산



나주초토영 터 (현 나주초등학교 백년관)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집강소 시기 전봉준 장군은 조선정부의 요청에 의해 파병된 청군과 이를 따라 들

어온 일본군 양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전주성을 비워주고 나온 후 전라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민군들에게 관군과의 지나친 충돌을 자제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지역을 통할하고 있던 손화중 장군과 최경선 장군은 전주화약 직후 신변보장 약속을 저버리고 귀가하는 농민군 32명을 살해한 나주목사 민종렬이 지휘하고 있는 나주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최경선 장군은 나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7월 1일 병력 5천명을 이끌고 나주에서 북쪽으로 10리가량 떨어진 노안면 금안리에 주둔했으며, 나주의 대접주 오권선도 나주 일대의 농민군을 동원해 7월 2일 금안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합류한 광주와 나주 농민군 1만여 명은 몇 부대로 나누어 나주성을 공략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일부가 금성산 쪽으로 이동했다가 7월 5일 나주성 총공격 때 서성문 쪽 공격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나주목사 민종렬, 도통장 정태완 등이 지휘하는 수성군의 저항을 꺾지 못해 나주성 점령에 실패하고 말았다.

나주초토영 터(농민군 처형지)

동학농민혁명군이 재기포한 후 호남지역 농민군들의 기세가 오르자 조선정부는 나주에 호남초토영을 설치하고 민중렬을 호남초토사로 임명해 10월 28일 무렵부터 농민군을 수차례 공격했다. 민중렬은 현재 나주초등학교 자리에 초토영을 설치하고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향교에 통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했다.

그러나 유생들은 농민군의 보복이 두려워 ‘관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에 따라 농민군과 수성군은 약 10여 일간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11월 6일에 당시 전라감사 이도재가 민중렬에게 ‘경병 5천명이 전주에 들어왔으니 안심하고 출병해 동학군을 초멸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 무렵 농민군 역시 광주의 손화중, 최경선, 나주의 오권선 접주를 비롯해 전라도 일대 농민군들이 모여 나주성을 공격,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결국 농민군은 수성군의 반격에 밀려 퇴각했고, 나주 인근지역에서 체포된 농민군들은 나주로 끌려와 처형당했다.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된 전봉준 장군, 고창 질마재에서 체포된 손화중 장군, 화순 동복에서 체포된 최경선 장군까지 여러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된 후 한양으로 압송되기 전에 수감되었던 곳이 나주 초토영이기도 하다.

금성토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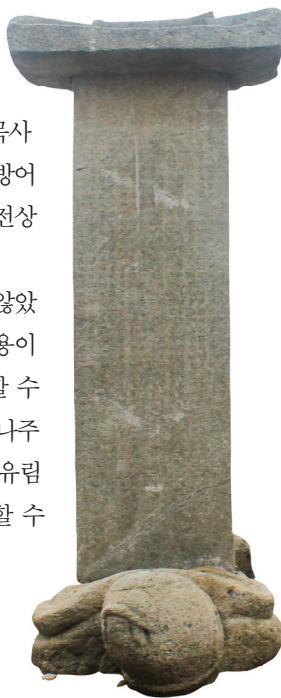
금성토평비는 1894년 농민군 공격에 맞서 싸워 나주성을 지켜낸 수성군을 기리고자 나주지역 유림들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나주목 동헌의 정문인 정수루 앞에 세워졌으나 1930년 금성관 앞으로 옮겨졌고, 1976년에는 현 위치인 금성관 안으로 옮겨졌다.

금성토평비의 전체적인 형상은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 위에 비를 세우고, 비 위에 지붕을 올린 모습이다. 현재는 받침돌이 땅속에 파묻혀 있어 윗부분만 확인할 수 있다. 비문은 당시 나주의 대표적인 유림이었던 송사 기우만이 지었다.

이 지었다.

비문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나주성까지 농민군이 진격해온 과정, 나주목사 민중렬이 여러 장수를 지휘하여 치밀한 방어 계획을 세우는 모습, 관군과 농민군의 접전상황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비의 건립과정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비문에도 건립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비문을 지은 송사 기우만이 나주 지역에서 이름났던 유림인 것으로 보아 유림 세력의 발의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성토평비 (좌측 끝)



子英基 영기 字舜孝一八四三年 憲宗九年癸卯生戊子 六月二十五日卒 以孝行有鄉道薦狀 墓安城里巽龍頭峰 北麓牛坐 配道康金氏俊欽女癸 卯生有二子三女 壬申正月三十日卒 以特異烈行有鄉道 薦狀墓回文山最高 峰北麓巽坐		子鍛 단 字伯汝一八六八年 高宗三年丙寅生 忌十二月二十日 配全州李氏吳宇女丁 卯生有二女 忌十一月十五日 墓艮川洞卯坐合兆	
女柳相玉 상옥 晉州人	女金文述 문설 道康人	女金壽欽 흥 道康人	子鎔 용 字玉汝號錦塚一八 八〇年 高宗十七 年庚辰生恭奉 忌
子柳峰魯 子柳成魯	子金煥萬	子權洙 권수 致斗后	女李恭珍 진공 全義人石灘慎儀后 子先五敦五
子系鐵洙 철수		女柳信赫 신 全州人子學善學東 相玉多福	

이천서씨(利川徐氏) 족보 유상옥(柳相玉) : 필자의 조부(서영기의 사위)

김개남 장군 피신처와 피체지를 찾아서

유태길 동학농민혁명군 유족

지난 여름, 정읍시 산내면 김개남 장군의 피신처와 피체지를 둘러보고 왔다.
동학농민혁명의 대접주로 전봉준 장군과 쌍벽을 이루는 혁명의 실세였던 김개남 장군의
피신처와 피체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김개남 장군은 청주에서 퇴각하여 1894년 11월 19일 전주에서 전봉준 장군과 헤어져 남
원으로 흩어진 후, 태인현 사승(四升-현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너디 마을)의 매제 서영
기(徐英基) 집에 잠거해 있었다. 이웃 중송리(현 중성리)의 임병찬(林炳贊)은 안전한 중



송리로 와 있으라고 김개남 장군을 유인하여 황현주로 하여금 강화병 80명을 거느리고 와서 12월 1일 새벽 체포토록 했다. 전라감영으로 압송된 김개남 장군은 전라감사 이도재에게 임의로 처형되어 42세의 나이로 최후를 마쳤다.(일본공사관 기록)

남원에서 태인 사승리 누님 집으로 피신 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최단 경로로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했을 것이다.

남원→순창→회문산을 돌아→임실 덕치면→임실 갈담→종송리→사승리

의 경로를 택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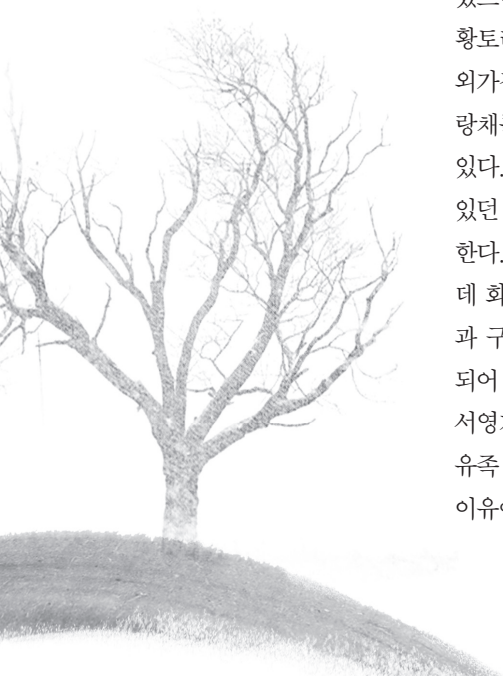
서영기(1843~1888)는 필자의 진외증조부(할머니의 부친) 되시는 분으로, 당시 이미 별세하신 후였고 김개남 장군을 숨겨준 이는 10살 연상의 누님(호적명 김지곡 金智谷 1843~1932)이었다.

김개남 장군과 사돈 간이었던 필자의 증조부(족보명 유희원 柳希源 1947~1895 천도교서에 등장하는 태인 접주 柳希道와 동일인으로 보임)는 접주로 고부접전(황토현) 전주접전, 우금치접전 등에 화포장으로 참전하고 집강소 기간에는 산내면(당시 1변면, 2변면)의 치안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일본군에 피체되어 나주에서 순절하셨다.

김개남 장군의 누님은 필자의 진외증조모(할머니의 모친) 되는 분으로 필자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지금실 할매” 이야기를 가끔 하셨는데, 성격이 과격한 편으로 여장부의 기질을 타고 나셨다고 한다. 어린 막내딸(필자의 조모)이 옆집 배나무에서 배꽃을 따다고 배나무 주인이 야단을 치고 손찌검을 하자 화가 난 할머니는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배나무를 찍어버렸다고 한다. 과격한 성격은 동생인 김개남 장군과 비슷했던 것 같다.

남편 서영기 할아버지와 동갑이신 할머니는 46세에 남편을 여의고 2남 3녀를 홀로 키우셨으며 태인 유림으로부터 효열상을 받은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산내면 종성리 황토리에 살았던 필자는 어려서 할머니나 어머니를 따라 칸짓날 같은 때 사승리(너디) 진외가집을 자주 갔었다. 초가집이었으나 높은 축대 위에 세워진 4칸의 본채와 행랑채와 사랑채를 구비한 큰 집이었다. 옛 집은 헐려지고 지금은 그 집터에 강대만 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집터는 전에 이 모 씨가 서씨 후손으로부터 매입하여 살고 있던 것을 자기가 매입하여 1990년에 전에 있던 집을 헐고 붉은 벽돌집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 김개남 장군의 누님은 김개남 장군이 피체 된 후 관군으로부터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화약과 탄환이 발견되어 김개남 장군을 숨겨준 죄로 관가에 잡혀가셨다. 혹독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옥고를 치루시다 풀려난 후 정신쇠약 증세를 보이시다가 치매로 악화되어 고생하셨다고 들었다. 아들의 극진한 간호로 90세까지 사셨다고 한다.

서영기 씨의 손녀(서중묵, 전주 1935년생)가 생존해 있는데 2005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등록신청에서 탈락되었다. 서영기의 손녀는 확실한데 서영기가 참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할머니가 김개남 장군을 숨겨주어 고초를 겪었는데도 등록이 안 된다는 것





이다.

당시 너의 마을은 많은 호수가 밀집되어 있는 변화가 지역으로 고지도에는 사승시(四升市)라는 시장이 있다. 집집마다 콩 한 알 썩을 거두어 모아보니 콩이 네 되나 되어 사승이라는 지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곳은 은신하기에는 위험하니 안전한 고산지대인 종송리로 피신하라는 임병찬의 꼬임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전봉준 장군과 김개남 장군, 두 동학농민혁명의 거두는 마지막 피신 길에서 각각 두 인물과 만난다. 김개남 장군은 누님을 찾아가 은신 한 후 임병찬을 찾아가 그의 밀고로 체포되고, 전봉준 장군은 입암산성으로 관군 별장 이춘선 장군을 찾아가 은신 한 후 일본군의 추격으로 피노리의 동지 김경천을 찾아가는데 그의 밀고로 체포된다. 김개남 장군의 누님은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렀고, 이춘선 장군은 역적 은닉 죄로 총살된다.

역사는 임병찬을 애국지사로 기록하고 있다. 같은 관록을 먹고 같은 계급인 종4품을 지낸 임병찬 전 낙안군수와 이춘선 선략장군은 모두 우국지사들이었



1. 김개남 장군의 피신 추정로
2. 김개남 장군이 피신했던 누님 집터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425 사승리 너디)
3. 김개남 장군의 피체지 부근(임병찬의 묘비가 있는 옆 공터에 임병찬의 주택이 있었다.)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276-1 윗종성 마을



지만 둘의 애국하는 방법은 정반대의 길이었다.

해발 450m에 위치한 임병찬 창의유적지(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276-1 윗종성 마을) 옆 김개남 장군의 피체지 부근에 올랐다. 정확한 피체 장소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임병찬의 주택이 있었던 묘비 좌측 공터로 추정해본다. 임병찬 창의유적지 안내문이 게시되어있고 임병찬 선생 창의기념표석이 묘지석에 새겨져 있다.

대한독립의군원사부사령총장둔헌임선생지묘(大韓獨立義軍元師部司令總長遯軒林先生之墓)라고 크고 길게 써진 임병찬의 묘비 옆 풀숲에 있는 김개남 장군의 피체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피체지 바로 앞집에 거주하는 김영원(79세)씨는 전에 한마을에 살았던 장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임병찬 묘비 옆 공터에 임병찬의 집에 있었다고 한다. 장인과 임병찬의 손자 임수평과는 친구였으며, 임병찬이 대청에서 호령하면 일본군도 감히 접근을 못했으며, 임병찬이 순창군수와 사돈관계로 순창전투에 소극적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김개남 장군의 체포과정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임병찬은(1851~1916)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최익현과 항일의병을 일으켰다. 을사늑약에 항일의병을 일으킨 그가 왜 12년 전 항일의병의 성격을 가진 동학농민혁명군 2차 봉기를 역적으로 단죄해야만 했을까? 일본군에 체포 될 때, 김개남을 고발한 것을 때늦게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김개남과 임병찬, 두 인물은 구국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였고,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같은 애국지사임에 틀림없으나 계층의 벽과 진영의 한계, 애국하는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적대적 관계였다. 임병찬 묘비석 바로 옆에 있는 잡초만 무성한 김개남 장군의 피체지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에 가슴이 짓눌러지는 듯, 생각이 혼란스럽고 헛갈렸다.



왜, 겨울철에 간지러움이 더 심해질까?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통증은 아닌 감각 가운데 가려움증만큼 고통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 게다가 이 가려움증을 해소하기 위해 긁다보면 더 심한 가려움증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니 말이다. 피부 가려움증의 고통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상 업무는 물론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가려움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들은 무엇보다도 피부가 충분히 습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건조한 계절인 겨울철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가렵더라도 긁지 말자 |

가려움증의 특징은 매우 참기 힘든 감각임은 틀림없지만 일단 긁으면 더 심해져 돌아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긁다 보면 별로 심하지 않은 가려움증에도 일단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문제가 있다. 손 등으로 피부를 긁게 되면 해당 피부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이때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상처가 아문 뒤에도 해당 부위의 피부가 다른 부위보다 더 두꺼워져 마찬가지로 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가려움증을 느낀다면 일단 로션이나 크림 등 보습제를 꺼내어 해당 부위에 바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입술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해 바세린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보습제 자체가 시원하기 때문에 바르면 벌써 가려움증이 심한 정도는 무더진다.

피부 가운데에서도 옷이나 다른 피부와의 마찰이 심한 곳에 가려움증이 잘 나타난다. 때문에 피부가 접힌 곳은 로션, 크림 등 보습제를 더욱 잘 바르도록 주의해야 한다. 옷차림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털옷보다는 면으로 된 것이 바람직하며, 너무 꽉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가려움증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

가려움증의 가장 큰 원인은 건조한 환경이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피부가 얼마나 습기를 머금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실내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려움증이 심한 사람은 사무실이나 방 안에 가습기를 쓰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습기 청소를 자주해서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빨래를 널거나, 수건 등에 물을 충분히 적서 방 안에 걸어놓으면 된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방 안이 쉽게 건조해진다. 때문에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 습도는 60%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냉기가 느껴진다면 옷을 더 껴입도록 한다.

우리 몸의 피부가 습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각질층을 잘 유지해야 한다. 각질층은 보통 약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주요 성분인 세포들과 이를 둘러싼 기름 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각질층이 한번 파괴되면 피부를 통해 손실되는 수분이 평소보다 10~20배 정도 늘어나며, 손상되면 1주일가량은 지나야 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각질층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목욕하면서 때를 미는 것이다. 때

에 가려움증이 심하다면서 때를 밀어 시원하게 만든다면 이는 가려움증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려움증을 예방하려면 때를 미는 것은 물론 뜨거운 물을 이용한 목욕나 샤워도 그 횟수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목욕하면서 각질층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샤워 뒤에 물기를 말릴 때도 수건으로 마구 닦으면 각질층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피부를 약하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도록 하며, 보습제는 아예 욕실 안에서 바르는 것이 피부 습기 유지에 좋다.

| 스트레스 등 감정 변화도 가려움증을 악화 시킨다 |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면 몸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져, 가려움증에 대한 감각도 더 커져간다. 이때에 조금만 가려워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쉽고, 해결책으로 로션이나 크림 등과 같은 보습제를 찾아 바르기보다는 피부를 심하게 긁어 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보통 가려움증도 마찬가지로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히 낮에 활동하거나 일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밤에 잠잘 때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우울한 기분을 날릴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으며, 잠자기 전에는 보습제 등을 충분히 발라 작은 가려움증이라도 미리 막는 것이 필요하다.

| 가려움증으로 시작되는 다른 질환도 있다 |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피부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몸의 다른 질환으로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빈혈, 당뇨, 기생충 감염, 간 질환, 갑상샘 질환 등이다. 이런 가려움증은 건조한 날씨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큰 관련 없이 나타나며, 보습제 사용으로 다소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나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질환 외에도 약을 먹은 뒤 관련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최근에 약을 바꾸거나 새로 복용한 뒤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 본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건강보험』 2010년 1월호 '알쏭달쏭 건강상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기념재단

시발통



01

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 연구 학술세미나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 연구 학술세미나]가 지난 10월 28일(수)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전라북도 전역에 산재한 총 156개의 동학농민혁명 관련유적지 및 시설 등의 가치를 밝히고 그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세미나는 심인보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의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연계와 지역 활성화 방안>,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교과서로 본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자산의 현황과 문제점>,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방안>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을 좌장으로 김형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선윤숙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총괄팀장, 김억동 원광중학교 교사, 금승대 전라북도 학예연구관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김대곤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학술세미나를 통해 21세기 문화관광시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02

재단 2기 제7차 운영위원회

지난 11월 27일(금) 용산역 itx 5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7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한 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기념대회 개최지역,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운영위원들은 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03

재단 2기 제9차 이사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9차 이사회가 지난 12월 4일(금) 용산역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재단의 정관 개정과 2016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사들은 각 안건에 대해 찬찬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04

전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유적지 답사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전라북도 소재 6개 고등학교(김제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덕암고등학교, 설천고등학교, 산서고등학교, 부안여자고등학교)를 답사대상으로 선정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총 24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람을 비롯해 전봉준고택, 만석보유적지, 사발통문작성지 등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를 탐방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했다.



05

동학농민혁명 전국 기념사업단체 워크숍

재단에서는 전국 기념사업단체, 유족회, 동학농민혁명포럼을 상호 연결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 까지 [동학농민혁명 전국 기념사업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유족회원, 포럼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첫날인 11일 김연 명창의 '김개남가' 등 판소리 공연으로 문을 열어 박남수 천도교교령의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 세계화 · 미래화>,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의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위상과 동아시아적 의미>,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삶과 인생>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정선원 (사)동학농민전쟁유금티기념사업회 이사의 해설과 함께 답사가 진행되어 유금티 전적지와 공산성을 방문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 조성의지 밝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0월 14일(수) 전북도의회 제 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역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내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문화자산, 관광자원, 역사공원, 체험시설 등 156곳을 연계해 하나의 커다란 동학농민혁명 권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연계하는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군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소중한 전북의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평집강소 활용방안 토론회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최규섭)는 지난 10월 23일(금) 금산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원평집강소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원도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원평 집강소 복원사업의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남궁연 전북교육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백덕규 김제시청 학예사,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오인근 김제시농민회 회장, 최교원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한경준 금산고등학교 학생 등이 종합토론을 펼쳤다.



태안 제25회 동학농민혁명 추모제

[제25회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가 지난 10월 29일(목) 충청남도 태안군 백화산에 자리한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위령문 낭독, 최기중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한상기 태안군수, 박남규 태안군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한국 태안문화원장의 추모사 이후 분향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 추모제는 1969년 태안극장에서 제1회 추모제가 개최된 이후 몇 차례 더 추진되다가 당시의 시대상황 등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추모제가 추진되어 올해로 제25회째를 맞았다.



고창군, 제12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원장 마인섭)은 지난 10월 30일(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제12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지역 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설정한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지역 농민군의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난계사집』을 비롯한 새로 발굴된 자료를 통해 고창지역 농민군의 활동상을 재조명하였다. 이날 기조강연은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무장기포 일 재고찰 포함〉이라는 주제로 이이화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어서 백원철 前공주대학교 교수, 이영호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손태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교수,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송찬섭 한국방송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홍동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각각 이어졌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홍천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지난 10월 30일(금) 홍천군문화센터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홍천군(군수 노승락)이 주최하고, 동학학회(회장 최민자)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Glocalization -강원도 홍천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 아래 최근 공개된 일본군의 진중일지 등을 토대로 홍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입증하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학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신순철 원광대학교 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3부로 진행되었는데, 제1부는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강호숙 원광대학교 교수, 신영우 前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수, 김기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조규태 한성대학교 교수, 안외순 한서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제2부는 전석환 강원대학교 교수, 채길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임상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우수영 경북대학교 교수, 김영철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태 홍천동학농민혁명 추모사업회장 등이 토론을 맡았다. 제3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최민자 동학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과 지역주민들이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관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홍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

지난 10월 31일(토) 남원시 요천변에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황의동) 주최로 [남원 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문화제는 <추모공연>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 제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학생 글쓰기대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방아치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갑오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와 진혼 시 낭송에 이어 추모 제례로 진행되었다. 방아치전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투였으며, 동학농민혁명군 2천여 명이 전사한 통한의 전투다.

이날 추모제례에 참석한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추모사에 이어 학생 글쓰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원도통초등학교 김세찬 학생과 단체상을 수상한 송동중학교 인솔교사에게 각각 시상했다.



상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사)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봉기)는 지난 11월 3일(화)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 앞에서 [상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제는 동학농민군이 상주읍성을 점령한 날인 9월 22일(음력)에 맞춰 진행되었다. 지난해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갑오선열들에게 올리는 추모제례 형식으로 추진했다.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고필호 사무국장은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초청해 갑오선열들에게 조촐하게 제를 올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우금티 추모 예술제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서 농민군이 가장 많이 희생된 공주우금치에서 지난 11월 8일(일) [우금티 추모 예술제]가 열렸다.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박남식)가 주최한 이번 추모 예술제는 공주농민회 임원과 회원을 비롯하여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전국 지역단체 관계자, 충남지역 역사교사모임, 공주지역 각급학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갑오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추모 예술제는 추모제례를 중심축으로 역사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전 9시부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펼쳐진 역사축제는 각종 전통문화체험과 영상작품 발표회 등으로 진행되었고, 오후 2시부터 우금티 전적지에서는 추모제례가 거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삼례봉기 기념대회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는 지난 11월 12일(목) 삼례봉기 역사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삼례봉기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귀 완주 부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동학농민혁명 지역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대회에 참석한 김대귀 완주부군수는 “완주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구국정신으로 희생하신 우리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고 전했다.

완주지역은 동학농민혁명군이 반일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재봉기에 나선 곳이며, 1895년 2월까지 일본군에 맞서 끝까지 항전을 벌였던 ‘대둔산 최후항전지’가 자리한 역사적인 고장이다.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지난 11월 13일(금) 무안군 승달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고석규 前목포대학교 총장의 기조강연 「의향(義響) 전남과 무안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시작으로 왕현중 연세대학교 교수의 「동학 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고막포 전투의 전개와 동학농민혁명에 미친 영향」, 정경운 전남대학교 교수의 「무안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 방향과 활성화 전략」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위익환 향토사학자,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임영규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박석면 (사)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선봉에 섰던 무안동학농민군의 위대한 정신을 후세의 정신적 귀감으로 되살리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121주년 내포 동학 문화제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박성묵)는 지난 11월 16일(월) 예산 관작리 전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121주년 내포 동학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진격로를 따라 걷는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는데,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예산전자공고 학생 등 200여명이 갑오선열의 숨결을 느끼면서 님들의 송고한 넋을 기렸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 관작리 전적지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동학, 가슴에 살아있어라〉를 주제로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행사 도중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자리를 지켜 갑오선열의 넋을 기리는 엄숙함이 한층 빛을 발하였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정읍,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난 11월 20일(금) 정읍시가 주최하고 한국민족운동사학회와 국제한국사학회가 주관한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국제 학술대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 - 점검과 대안>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유영렬 前국사편찬위원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성주현 청암대학교 교수, 강효숙 청암대학교 교수, 비온티노 유리안 서울대학교 교수, 이노우에 가츠오 홋카이도대학교 교수, 드미트리 파블로프 러시아 아카데미 역사연구소장의 주제발표 이후 윤경로 前한성대학교 총장이 의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김생기 정읍시장은 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세계가 인식하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혁명의 세계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알립니다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법정기부금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 회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개혁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학농민혁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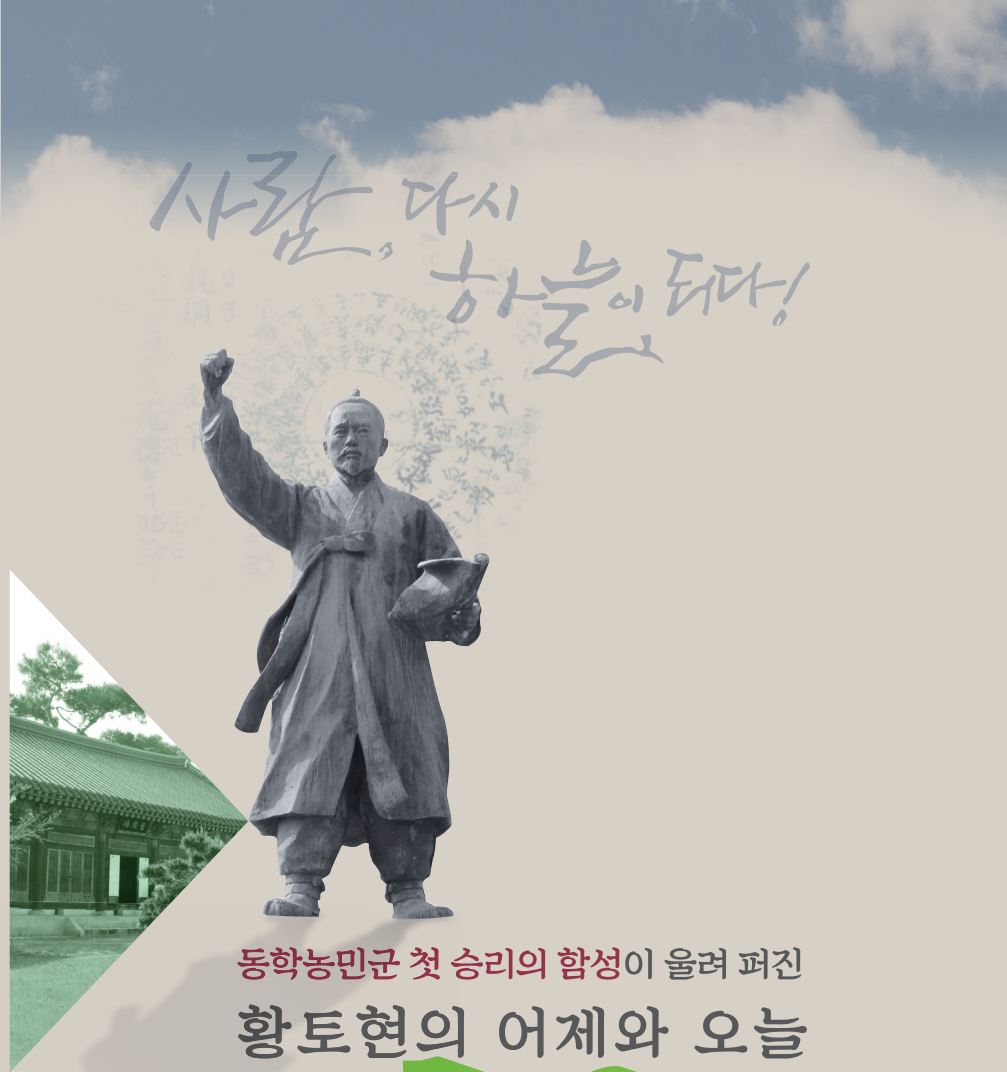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해 쓰러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통해 내일을 알고자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통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뜻 있는 분은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 동학농민혁명포럼 가입시 우대사항

-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개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우선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전국기념대회 및 각종 행사 초대
- 동학농민혁명포럼 회원간의 발표회 및 토론회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간 서적, 각종 자료 등 무료 제공 등

※ 가입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상단 [포럼회원가입] 클릭

※ 문의 : 기념사업부 최경훈(063-538-2894, oasis@1894.or.kr)



동학농민군 첫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진
황토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5년도 하반기 기획전

전시기간 _ 2015. 11. 17(화) ~ 2016. 4. 30(토)

장 소 _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전라북도